



NEWS - 2014가을독서문화축제, 찾다 보다 그리고 머물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독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4가을독서문화축제가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부산시 중구 광복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작년과 비교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8월 11일부터 9월 21일 행사 당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행사는 ‘향토 서점 살리기’라는 부제에 걸맞게 각 향토 서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행사로, 인문학·어린이문학·세계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각 서점의 특색을 잘 살려 서점이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독서축제와 차이가 있다.

또한 9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롯데백화점 광복점 10층 다목적 홀에서 신길자 강사와 김도윤·제갈현열 강사를 모시고 20대를 위한 청춘 강연을 진행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 강연은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강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북 콘서트는 9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광복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올해에는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김영하 작가가 시민들과 만난다. 개막식에 이은 마술 공연과 김영하 작가와의 북 토크, 샌드아트, 뮤지컬 OST 등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공연을 이어나가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게 될 것이다.

9월 20일에 이어 21일에도 무대 행사가 동요사랑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독서문화음악제를 개최한다. 9월 13일 예선을 통해 1차 심사를 하고 21일 본 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펼친다. 본선 참가자들에게는 부산광역시장상을 비롯한 시상이 주어진다. 독서와 노래를 결합한 이 음악제는 올해 1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2014 가을독서문화축제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일부행사는 사전 접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문의처 : 공식 블로그(<http://2014books.blog.me/>)

(사)한국독서문화재단 (051-243-4842)

출처 : 미디어다음

2014 가을독서문화축제

찾다, 보다 그리고 머물다

2014. 9. 20(토) ~ 21(일) 부산시 중구

사전행사 : 8. 11(월) ~ 9. 19(금) '부산의 책방'
 ▶ 향토서점 독서문화행사, 20대를 위한 청춘 특강

개막행사 : 9. 20(토) 17:30 ~ 20:30 광복동 특설무대
 ▶ 식전행사, 개막식, 북콘서트(초청작가 김영하, 독서문화음악제)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 (사)한국독서문화재단
 후원 : 중구청, 공공도서관,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동요사랑회
 협찬 : 롯데백화점광복점, (주)루라이®, 예뻐온로라리클럽
 문의처 : (사)한국독서문화재단 <http://www.gunara.or.kr>
 TEL. 051-243-4842 ~ 3
 공식 블로그 <http://2014books.blog.me>



10월 개강과정 정기 수강신청 접수안내

· 정기수강신청기간 : 2014년 09월 01일 ~ 09월 30일

· 추가수강신청기간 : 2014년 10월 1일 ~ 10월 10일

	과정명	기수	강의수강시간	복습시간	수강료	주관	수료조건
자 격 과 정	독서지도사 통합	44	2014.10.01 ~ 2015.01.31	1년	282,000원 (첨삭료 포함)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80%이상 + 과제 100% 제출시 수료 가능
	독서지도사 2급	47	2014.10.01 ~ 2014.11.30	1년	163,000원 (첨삭료 포함)		
	독서지도사 1급	47	2014.10.01 ~ 2014.11.30	1년	173,000원 (첨삭료 포함)		
	논술지도사	109	2014.10.01 ~ 2014.11.30	1년	178,400원 (첨삭료 포함)		
	중등통합논술지도사	84	2014.10.01 ~ 2014.12.31	1년	217,400원 (첨삭료 포함)	벅스북 평생교육원	
	NIE지도사	78	2014.10.01 ~ 2014.11.30	1년	208,000원 (첨삭료 포함)	한국NIE협회	
	동화구연지도사	29	2014.10.01 ~ 2014.11.30	1년	208,000원 (첨삭료 포함)	한국언어 능력평가원	
수 료 과 정	유아독서지도	102	2014.10.01 ~ 2014.11.30	2개월	96,200원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100% 수강 시 수료 가능 (* 독서치료과정 강의수강 80% + 과제제출 100%)
	글쓰기지도	105	2014.10.01 ~ 2014.11.30	2개월	109,200원		
	독서치료	96	2014.10.01 ~ 2014.12.31	3개월	164,700원		
	역사논술지도	84	2014.10.01 ~ 2014.12.31	3개월	183,600원	벅스북 평생교육원	
	한자교육급수지도	76	2014.10.01 ~ 2014.11.30	2개월	132,600원		
	한자공인급수지도	75	2014.10.01 ~ 2015.01.31	4개월	218,400원		
보 수 교 육	독서지도사보수교육	51	2014.10.01 ~ 2014.10.31	1개월	30,000원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100% 수강 시 수료 가능 (*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 갱신)
	논술지도사 보수교육	51	2014.10.01 ~ 2014.10.31	1개월	30,000원	벅스북 평생교육원	
	중등통합논술지도사 보수교육	36	2014.10.01 ~ 2014.10.31	1개월	30,000원		
	NIE지도사 보수교육	13	2014.10.01 ~ 2014.10.31	1개월	30,000원	한국NIE협회	

참고하세요!

벅스북 과정
진행 절차

1. 지원서 작성

- 강의 수강 전 반드시 지원서 작성 (교재발송, 수료증 및 자격증 발급 근거 자료)

2. 수강진행

- 동영상 강의 : 수강기간 내 5번까지 반복 수강 가능 / 80%이상 수강(Play)시 출석인정-> '수강완료'로 처리
- 강의교재(강의안) : 강의실 내 '강의보기>교재받기'에서 PDF파일로 제공
- 과제제출 : 강의실 내 "과제방"에서 내용 확인 후 첨부 원고지 사용하여 과제 작성 후 제출

3. 과정수료

- 정기수료 : 수강기간에 맞춰 수료조건 충족 시 (수강진행 80% 이상, 과제 100% 제출 + 월 1회 수료평가 Pass)
- 조기수료 : 수료를 원하는 달에 맞춰 충족 시 (수강진행, 과제제출 100% + 월 1회 수료평가 Pass)
- * 벅스북 고객센터(1544-6164, 단축번호 2번)로 연락 / 수료과정은 수료평가 없음

4. 수료증 발급

- 수료일 익월 6일 이후 강의실 내 "수료증발급"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5. 자격검정 응시

- 수료 후 1년 안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에 응시가능 / (사)한국독서문화재단에서 자격증 발급

이달의 소식 ✨
NOTICE

2014년 3분기 벅스북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3시 ~ 9월 28일(일) 12시, 1박2일
- 대상 : 교육 및 독서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
- 장소 : 숲속도서관 토끼와 용달샘(삼랑진)
- 참가비 : 7만원(벅스북 회원은 무료), 교재비 : 1만원 별도
*보수교육 대상자 3만원(교재비포함)
- 지원서접수 : 9월 19일(금)까지 벅스북 홈페이지

[3분기 특강 참여 신청] 작성

* 자세한 사항은 벅스북 홈페이지(www.bugsbook.com)에서 확인하세요.

내 인생의 인연

- 우수작 / 논술지도사 105기 정희영

학창시절 책을 꽤나 들고 다녔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학책을 들고 다니며 나름 분위기를 내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라는 것도 굵적여 보고, 사람 냄새나는 수필이 좋아 글 쓰는 시늉도 내기도 했었다.

그랬던 나였지만 결혼을 하고 엄마라는 이름이 붙여진 뒤 내 두 손에 들린 건 아이와 살림살이였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아이에게 읽혀 줄 책은 놓지 않았다. 태어 난지 한 달 갓 지난 갓난쟁이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어 주고 그림을 보여 주었다.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행복했다.

그러던 중 독서지도사라는 생소한 이름의 직업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계발을 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어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벅스북이라는 온라인교육원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다행스런 일이고 벅스북을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든 계기가 되었기에 감사함을 느낀다.

온라인으로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큰 아이 친구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벌써 8년째다.

그동안 독서지도사로서 자원봉사도 다니고 학교에서 어머니들과 독서 동아리 수업도 진행하게 되었다.

가정에 있던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슬럼프라는 불청객이 찾아든다. 내게 있어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것이었다.

내 직업에 회의가 느껴지고, 스스로 나태해질 때 나는 언제나 벅스북을 찾는다.

여러 강좌를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만나는 아이들 얼굴을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익숙함이 나를 뒷걸음질 치게 할 때 논술지도사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되었고, 가르치는 사람이 채워야 할 에너지를 내 안에 한가득 담았기에 한동안은 아이들과 즐겁게 책을 읽을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엄마라는 이름이 주는 행복감도 소중하지만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 존재가치를 느끼며 살게 하는 것 같아서 좋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들려주는 것이 행복한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갖게 해준 벅스북은 내 인생 최고의 인연 중 하나이다.



<김상운 교수님 글> - 팽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다니던 선배가 대학졸업시험에 '돌아가는 팽이가 왜 넘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팽이를 돌리면서 채찍으로 때릴수록 넘어지지 않고 더 잘 돌아가는 것을 늘 궁금해 하던 나는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평소에 궁금해 하던 것은 답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잘 되지만 반대로 별로 궁금해 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만 가르쳐주면 지겹기도 하고 그 답이 고마운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에게 궁금해 할 것이 많은 체험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어 형들이 소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들 때 뾰족하게 깎은 끝 부분에 철심을 박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부드러운 나무의 끝이 땅에 닿아야 팽이가 잘 돌아갈 텐데 왜 쇠로 만든 끝을 만드는지 이상했습니다. 또 나는 활시위를 고무줄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형들은 늘어나지도 않는 전선으로 힘들게 매어 당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살은 고무줄 힘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활대가 휘어지는 반동으로 날아갈 때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대가 영어로 D자처럼 둥글지 않고 B자처럼 가운데가 들어간 이유도 활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시위를 더 넓게 당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책 속에 나비 그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태에 관한 그림이 많았는데 요즘은 운동에너지니 위치에너지니 하는 개념을 주로 공부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교육학자 브루너의 구조주의 이론을 그대로 우리교육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개념에서 체험으로 라는 새로운 탈구조주의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념보가 중요한 직관을 통한 교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운
고신대학교 교수
(사)한국독서문화재단 회장



< 김경만 작가 수필 > - 화두

글은 왜 쓰는가?

늘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다주며 내 창작의 힘이 되어 주던 글벗이 얼마 전 건넨 화두이다. 이 명제 앞에서 몇 날을 무거움으로 보냈다. 잠깐의 생각 끝에 전한 내 답 글을 접하고서 벅은 꾸짖음과 함께 며칠간을 기 긴 고뇌 속에서 얻은 명쾌한 답을 보내왔었다.

보내온 글에서 벅은 무릇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깊이 고뇌하였을, 해 보아야 할 화두라고 전제하고 단발머리 시절 교과서에 실린 수필들을 접하며 글쓰기가 시작되었다고 회상하고 있었다. 밤을 지새우는 열정과 고뇌의 침묵을 반복하며 언젠가부터, 살기 위해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듯 글쓰기가 일상이 되었다 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념과 고뇌들이 사유의 시간을 거치면 곱삭은 한 편 글로 탄생하는 것이리라. 이제 벅은 더한 자유로움으로 진정 참다운 문인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면서 이 화두를 풀고 있었다. 벅이 대견하고 존경스럽다. 훈훈한 감동과 고개 끄덕임으로 벅의 작가 정신을 대하며 더한 정진으로 문단에 우뚝 서길 소망하는 마음이 되며 이 화두에 대한 고민은 다시금 시작되었다.

문학청년이었던 만행을 그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만 보았던 어린 시절 그 소년이, 언제인가 찾아든 삶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나의 글쓰기이다. 스치고 지나간 그해 이후에 그 삶의 묵직함을 버거워할 수밖에 없었다. 육체적 제약 탓에 점점 작아지는 가슴을 위로할 그 무엇이 필요했다. 잃어버린 반쪽의 허허로움을 채워 주기 위한 신의 동정인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진즉 있었다. 무작정 글만 썼다. 이렇게 시작한 글쓰기는 두려움을 지닌 채 내 얘기를 들추어내어 엉겨있던 시선을 해집고 들어가 고향과 부모를, 벅과 자연을, 그리고 장에 지닌 삶을 통해 사랑을 끄집어내어 세상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늘 우리 곁에는 희망이 존재함을 찾으려 하였던 시간이었다. 난 행복했다. 이러한 시간과 보내던 중 동단이라는 선물은 한순간 희열로 다가왔었다. 그러다 그도 잠시뿐 어떤 낯섦과 또 다른 모자람이 무게로 엄습했다.

이런 느낌들로 망연히 펜을 놓고 있던 터에 벅에게서 받은 이 화두는 왠지 애절함으로 다가왔었다.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그 어둠과 침묵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곧 글을 쓸 수 있는 조각들이라 여겼다. 이것이 자기 응시이며 이는 곧 고통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껏 나는 그 고통들을 승화시킨다는 견지에서 백지를 채워 왔다.

허나 깊이가 부족하였음을 새삼 느낀다. 다만 자기 부정으로 이어져 표현의 한계를 느껴 왔었다.

이것이 동안의 글쓰기에서 느껴왔던 불안이며 두려움이었음을 직시하는 이 시간이다.

이제 울음을 멈추려 한다. 슬픔이 밀려오면 바다가 내 몸 안에서 출렁거렸다. 그러나 바다는 슬픔들을 평화롭고 그윽하게 받아들이며 너울대고 있었다. 그런 바다를 함께 슬퍼하자며 부여잡고 애원하였던 모습들이 스쳐 지난다. 그러면서 토해 내었던 것이 지금껏 나의 글이다. 부끄럽다. 이제 나도 벅처럼은 아니어도 내 인생의 이정표를 바로 세워 가는 작업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려 한다.

자신의 얼굴은 거울이 아니고는 보지 못한다. 그러기에 거울을 보는 조금의 시간을 빼고 나면 남을 위한 것이 얼굴이다. 하물며 꿈속에서도 내 얼굴은 볼 수 없지 않은가? 글도 이와 무엇이 다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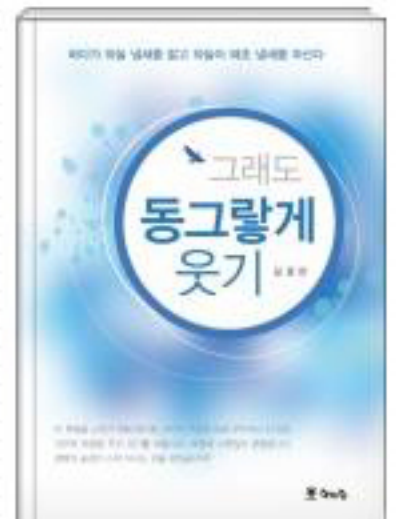
글 쓰는 이가 자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도취에 빠져 있다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겨우 연민에 호소하는 것임을 이제야 깨우친다. 착각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실이 되듯이.

이 화두 탓에 내 얼굴을, 글을 확인 할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동안의 두려움이 여기에서 기인하였음을 소중히 얻는다.

깊이 사유해야 할 것이다. 성숙해야 하리라. 생각이 자유로워 거칠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할 말이 들어 있는 살아있는 글을 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내 글에 그러함이 담기어지도록 정진해야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이들과 나누어 가지는 즐거움을 통해 맑은 선흥빛 미소를 함께하며 평행선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하여, 이제 내 글 속에 조그만 나의 아픔은 깊이깊이 묻어 두려 한다. 그리해야 할 것이다.



★

도서소개

👑 신간도서 - 알류산의 마법

· 글 : 최영민
· 그림 : 이명애
· 출판사 : 분홍고래/204쪽/2014.08.24.출간

자라나는 어린이의 마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심리 동화 시리즈 「두근두근 어린이 성장 동화」 제2권 「알류산의 마법」.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아기 귀신 고래 귀령이의 감동 스토리를 담았다. 귀령이는 여행을 통해 만남과 이별을 배우고, 자신의 존재를 돌아본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아를 찾아 나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출처 : YES24.COM

* 벅스북에서는 매월 추천도서를 선정해 회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벅스북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